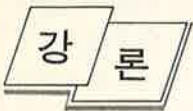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제 1 독서 : 2 역대 24, 18-22
 제 2 독서 : 로마 5, 1-5
 복 음 : 마태 10, 17-22

순정이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 22).



죽음을 선택한 사람



김태환 신부 / 교장 천주교회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는 1844년 12월 몽고의 팔가자 성당에서 부제품을 받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1846년 9월 16일 세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 치명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당시 유학의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 이념인 사랑과 평등과 자유를 설파했던 김대건 신부는 오늘날로 보자면 소위 ‘극소수 좌경 용공분자’이며 따라서 지극히 위험한 ‘국가보안법 적용 범법자’이었던 셈이다.

보통으로 성인전 속에서 보여지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용감하고 지극히 찬사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절망적인 순간들이나 두려움, 공포와 같은 인간적인 면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삭제되었거나 무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들의 용감성과 찬사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과 초조와 갈등의 번민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예’ 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절대자 하느님을 믿는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가치있고 아름답게 영위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순교자로, 성인으로, 그리고 선구자로 흠모받으며 공경받고 있는 그들이 그 옛날에는 초라하고 왜소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거나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마치 순교가 천사들의 환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양심수들이나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초라하고 왜소하게 보이도록 유혹받거나 고문이나 격리를 통해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그분이 한국사에 있어서 변혁기에 등장하여 변혁기의 어지러운 혼란과 진통 속에서도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참뜻에 따라 시대의 구조적인 악과 모순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선구적 역할을 했음을 잘 묵상해야겠다.

그리고 정치 부재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김대건 신부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다.



여 명

우리들의 신부님

한상갑(바오로)

자전거 도둑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파레스끼가 쓴 「돈 까밀로의 곤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우리의 까밀로 신부가 30리나 떨어진 읍내에 알량한 장보기를 나왔다가 낡은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종지기를 만나는 이야기다.

까밀로 신부의 자전거를 훔친 도둑과 나누는 대화가 배꼽을 쥐게 한다. 돈 까밀로는 자전거를 취급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강변하는 사내를 꼬셔서(?) 그의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종지기로 채용해 버린다.

1960년대에 경향잡지에 연재되었던 까밀로 신부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다.

단편적인 이야기로 엮어진 돈 까밀로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재미라기보다는 친근한 애정을 느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이다. 독자들은 궁금하게 여기던 사제의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까밀로 신부는 공산주의자인 삐삐네 읍장과 끈질기 싸우며 고통을 먹이기도 하고, 그것을 즐기며 예수님께 보고하다가 혼나기도 한다. 심술이 나면 예수님께 대들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다소곳이 순명한다. 이처럼 읽을 맛이 나는 내용들인지라 파레스끼의 글은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제목으로 연달아 선을 뵈었다. 이 책은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래서 잘 팔리는 책이 되었다.

이 시대의 삐삐네?

요즈음은 덜 하지만 계절이 좋은 봄과 가을에는 본당마다 성당 좌석이 많이 빈다. 대신에 결혼식장이나 관공지가 붐빈다. 혼사 부조나 계모임 등은 빠질 수 없는 일이어서 더 그렇다. 조금 열심히 신자라면 얼른 미사에 참례하고 곧장 예식장으로 달린다. 이때 본당신부의 강론이 조금만 지루하다 싶으면, 그 미사는 온통 분심중에서 대강대강 끝나고 만다. 그러면서 곧잘 불만을 터뜨린다. 강론의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일주일만에 한 번 만나는 판에 꼭 그렇게 혼내기만 해야 하느냐 하면서 말이다. 글썽다. 본당신부야 일주일 만에 만나는 신자들이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아서 그럴텐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이 시대의 삐삐네(?) 모습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신자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과 형제들을 만나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 신자들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잘못 산 삶에 대하여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원하며 형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영혼의 활력을 충전한다. 그러기에 사제의 일상생활이나 강론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는지도 모른다

신자들의 소망

한국천주교회는 200주년을 지내면서 사회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신자들은 사제에게서 참다운 목자로서 자기를 희생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다수(64.7%)이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제와 평신도가 잘 협력해야 한다(67.5%)고 생각하며,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는 사제들이 신자들의 의견을 자주 묻는다(67.9%)고 여긴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세속적인 일과 결부시킨 강론에서 많은 감화를 받는다(64.8%)고 말한다. 가톨릭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전교의 걸림돌은 교회의 중산층화 및 대형화(59%)고, 가장 효과적인 전교방법은 성직자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60%)이라고 수녀들은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제에게 바라는 바들이 많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며 두 가지 소망을 기원한다. 중국 땅에서 고생하시는 임 신부님과 감옥에 계시는 문 신부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시기를.

순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어머니의 기도

장순례(수산나) / 효자동 성당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오히려 과보호 때문에 문제되는 세상. 제 자식밖에 모르고 아이들에게 잔뜩 이기심이나 불어넣는 요즘 부모들과는 달리 주님의 명대로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신 분이 있다.

우리 교구의 형제 신부이자 하느님 정의를 구현하는데 늘 앞장서시는 문정현, 규현 신부의 어머니 장순례(수산나·80세) 할머니.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이분은 박해를 피해 수류로 피난온 부친 장춘명(바오로) 씨와 모친 박계(수산나) 씨의 2남3녀 중 장녀로 7세 때 전주로와 전동 성당에서 수계생활을 했다. 마음에 늘 수녀되기를 열망했던 이분의 삶에 주님은 다른 길을 허락하셨다.

22세 때 남편(문범문·베드로·별세)을 만나 황등으로 이사하여 4남3녀를 두었고 주께서 맡기신 자식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당시 공소회장이던 남편이 성당 신축공사 등 성당일에만 매달리게 되자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일, 농사일 등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해내야 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던가. 둘째(문정현 신부), 셋째(문현옥 수녀·인보성체회), 넷째(문규현 신부)가 나란히 성직에 나섰다. 자식들이 많았던 시절이긴 했으나

하나도 아닌 셋씩이나 주님 대전에 나섰으니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신의 삶에 비해 너무 큰 은총을 받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고 한편 잘 살아낼까 하는 걱정으로 묵주알을 굴리며 성모님의 품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곤 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세월. 더욱이 아들 신부들이 옥살이까지 감수하며 옳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데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으나 내 자식이기 이전에 주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견스러움이 앞섰다. 면회 때마다 울음을 삼키고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장한 일을 했다. 감옥살이 힘들어도 참아내어라.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그게 어디 고생이 더냐” 하며 훈계, 격려까지 했다고 한다.

인생의 모진 풍파 속.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한치라도 그분의 뜻에 어긋날까봐 조심스레 미소를 머금고 살아온, 그리고 오늘도 모든 성직자, 수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바치는 장수산나 할머니. 이분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어머니요 사제들의 어머니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신자들의 소리

여름 캠프를 보내면서

박혜정(수산나) / 평화동 성당



애들아!

이 무더운 여름에 캠프를 떠날 수 있다는 너희들의 젊음이 몹시 부럽구나. 여름은 젊은이들의 계절이며 모든 자연은 한껏 자기 몫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이 우주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느님과 더불어 마음껏 즐거워하고 힘껏 배우고 일하며 자연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커졌으면 참 좋겠구나.

다람쥐 체바퀴 돌듯 늘 되풀이 되어지는 일상생활의 타성에 젖어 오래 그러려니,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고마워할 줄 모르는 무딘 마음이 벗겨져 새마음, 새정신으로 바뀌지기를 기대해본다. 정말 우리는 너무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 산, 나무, 우거진 숲,

햇빛, 공기, 물, 바람, 별 등.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니? 이 우주에 자연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 보기를 바라며 그 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너희들 각자의 길을 준비하고 마련해두시는 하느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너희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의 만남과 사귄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엄마인 나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아주 즐겁다. 부디 이번 캠프를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며 먼 훗날 너희의 인생길에 ‘새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며 만족해 할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초·중·고 여름 교리교육 프로그램

가자! 성서의

여름이 돌아오면 으레 머리에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다. 친구들과 한데 모여 교리를 받고, 물놀이 가서 선생님을 물에 빠뜨렸던 일, 캠프파이어 등 우리의 기억엔 아직도 추억거리가 줄줄이 끊이지 않고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름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바쁘다. 특히 여름 교리교육을 준비하는 초·중·고 교리교사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부산스럽고 분주한 모습들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 교리교육이 실시되기 1-2달 전에 벌써 물놀이·캠프 장소는 물색되어졌고, 이젠 프로그램 결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곧 학생들은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게 되고, 또한 학기 동안 학과공부에 전념해온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과 기대를 안고 여름 신앙학교와 캠프를 기다리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하느님을 좀더 가까이 알 수 있고, 보다 더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그들을 맞게 된다. 그래서 올해에는 초·중·고 여름 교리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우리 교구 사목지침인 "성서를 우리 삶의 중심에"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어린이들의 신앙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여름 신앙학교의 교리교육이 이번 해에는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어린이들에게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서를 공부하는 방법, 성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하게 되었다. 성서라는 이미지가 어린이들에게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좀더 쉽게 성서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교재 내용

1과 하느님과 인간: 성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구성되었는지 알고 성서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시킨다.

2과 모세와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통해 그 역사적 사건과 하느님의 계획과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3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탄생, 수난, 죽음,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찾고 어떻게 구약이 신약을 통해 완성되어지는가를 알게 한다.

4과 예수님을 찾아서: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 말씀, 즉 성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읽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심어주도록 한다.

2.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

중·고등부의 여름 교리교육은 여름 특별 교리와 여름 캠프로 나누어 실시된다. 즉 여름 특별 교리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으로 짜여지며, 캠프에서는 그 이론적인 내용에 바탕을 두고 강의식을 배제한 체험적인 학습방법을 통하여 실제 체험하고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여름 캠프의 목적은 '체험'이다. 목적 없는 흥미만의 놀이도 아니고, 지식적인 단편의 학습도 아닌 바로 '체험'을 위한 시간인 것이다.

자갈 텐트 셋트 분할판매

· 각종 등산 장비 일절

정시택(아오스딩), 김미향(세실리아)

군산 시청 옆(군산시 영화동 20-3)

☎ (0654) 445-6090

445-6091

경동보일러 정주대리점

난방 자재 일절 도산매

유 태 수(안드레아)

이 영 순(엘리사벳)

☎ (0681)537-5800

황수경 산부인과

여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나라로 ...

올해 우리 교구 중·고등부 여름 교리 교육 역시 초등부와 마찬가지로 '성서'를 내용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올해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의 주제를 '성서나라의 여행'으로 설정하고, 여름 교리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행을 통한 교육 전달 방식을 택하여 성서의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졌다.

(1) 여름 특별 교리교재 내용

1과 가나안 땅에서: 성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다룬다. 즉 가나안 땅에서 랍비를 만나 성서란 어떠한 책인가를 알아보고 또한 성서의 중요성, 형성과정 등을 공부하게 된다.

2과 이집트에서: 구약성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번 과에서는 구약성서의 중요한 사건의 인물인 모세를 이집트에서 만나 구약성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 구성 등을 공부하게 된다.

3과 예루살렘에서: 신약성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번 과에서도 신약성서와 중요한 인물인 바오로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만나 신약성서의 내용, 분류방법 등을 공부하게 된다.

4과 로마에서: 성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공부하게 된다.

(2) 여름 캠프

- 첫째날: '자, 떠나자 성서의 나라로'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성서의 형성 등을 체험한다.
- 둘째날: '구약나라의 여행'을 소주제로 정하고 계약에 대한 의미, 구약 계약서 작성, 옛 계약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 셋째날: '신약나라의 여행'을 소주제로 정하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옛 계약의 파기, 새로운 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넷째날: '우리가 찾은 성서나라'를 통해 성서를 바르게 읽는 자세 등을 배운다.

요십이 (987) 김병오



교사초빙

과목 및 인원: 지구과학 1명
 제출서류: 이력서, 호적등본,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대학전학년성적증명서 각1통
 접수마감: 92. 7. 18. 12까지
 면접: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접수처: 전주해성중고서무과
 ☎ 251-9735

공예기구

아 씨 방

(이리 대리점)
 류 경 선(오 한)
 전 춘 자(수산나)
 이리시 신동 806-7
 ☎ 858-0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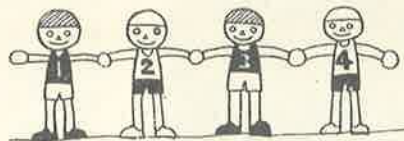
모범수학 회원 모집

주간학습지, 주1회 교사 방문
 교과단원과 숙달과정 병행
 만 3세-중3

민 정 애(세실리아)
 ☎ 85-8069

교회는

여름방학에 학생들에게
 하느님을 좀더
 가까이 알 수 있고
 보다 더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청 신고 2564호
우리 한문 교실

어린이 한자, 사자소학,
 천자문, 명심보감 등
 효자동 서원국교 후문 사거리
 문혜영(파비올라)
 ☎ 224-5907

대학 입시 전문

고도 미술학원

디자인계, 구성, 팻상, 동양화
 김 석 준(안드레아)
 제일학원 옆 대림빌딩 5층
 ☎ 86-6575

여름방학 대 강좌

중·고
 개강 7월 28일

대일전문 전우한샘학원

전주 74-7424 코아 후문 시청 사이

소정 서예학원

한문·한글 수시 접수
 국교생 초보자 환영

이 정 옥(가타리나)
 서원로 할매곰탕집 건너편
 ☎ 221-7777

특 집

안식일과 안식년

김윤섭(안셀모) 신부

“하느님께서 옛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창세 2, 2). 또 “너희는 옛세 동안 일을 하고 이렛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쉬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붙여 사는 사람도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 (출애 23, 12).

6일간 일을 하고 이렛째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 한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에는 일요일(주일)을 안식일로 지낸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요, 은총의 날인 동시에 기쁨의 날이요, 귀한 날이다.

예수님도 전교에 지쳐서 돌아온 열 두 사도들에게 말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휴식(쉽)이란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일의 보람을 가지기 위해서 자유와 휴식(쉽)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밤에 잠을 자면서 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 이튿날 새날의 새생명을 위해서 필연적이며 당연적이다. 안식년이란 편안히 쉬는 해라는 뜻이다. 유대사람들이 칠년 만에 일년씩 쉬던 해, 또는 서양 선교사들이 7년 만에 한 번씩 쉬던 해라고 일반 사전은 말한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7년째에는 땅에는 휴식(쉽)을, 노예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빚진 자들에게는 부채의 탕감을 주는 해였다. 이것을 우리는 안식년이라 한다. 자유와 해방, 휴식과 희망을 주는 해이기에 안식년을 다른 말로 희년이라 한다.

교구 설정 반세기가 넘은 전주교구에서도 92년도부터 성직생활 10년 이상의 사제들에게 안식년을 지낼 수 있는 규정이 세워졌다. 선교사 생활의 보답인지 나에게 첫 혜택이 주어졌다. 본당사목에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휴식이 나에게겐 그야말로 희년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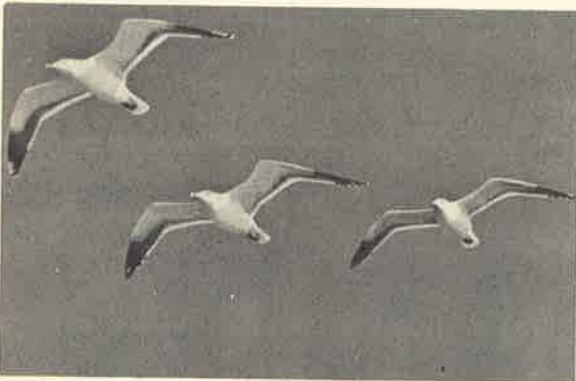
신부란 두 가지 큰 직책 즉 사제직과 사목직을 이행한다. 그 옛날 소신학교에서 방학을 할 때 교장신부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공부는 방학이 있어도 기도는 방학이 없다는 말이다. 신부에게 있어서 안식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목직에 있어서는 안식년이 있어도, 사제직에 있어서는 안식년이 없다고 생각된다. 성직에 있어서 오직 사목분야만이 안식년이 되는 것이다. 사목에만 자유와 해방 그리고 휴가(쉽)를 주는 것이다.

안식년을 지내고 있노라니, 그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어느 신자는 안식년이란 본당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요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심지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느냐? 빨리 외국에 나가서 한 나라라도 더 다녀와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칠년 동안이나 외국 생활을 했으면서도 무엇하러 외국에 또 나가려 하느냐? 안식년을 시범으로 특별히 준 것이니, 빨리 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등등.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있다.

위의 말대로 안식년을 얻은 것은 여행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어느 본당에 일을 도와주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며, 유행병을 쉽게 걸리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안식년을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참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휴식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희년이 오히려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땅에게도 휴식을 주듯 안식년은 성직생활의 반성과 계획,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농협계약판매·카드분할판매

서해수족관

고가구대리점 ☎841-5440,
동부시장노동청 위 ☎842-1100

이규홍(안토니오)
채숙녀(세실리아)

임대 안내

화산국교 서편 신축 건물 4층
지하1층, 지상1·2층 각각40평
학원, 독서실, 병원, 기타 등.

이창옥(요셉)
노시연(테레사)
☎ 221-0310

젊음과 지성의 멋

캐주얼 **행 텐**
Hang Ten

채석자(글라라)
전주백화점 옆
☎ 87-6575

교구소식

❖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때 : 7월9일(목) 오전10시30분
- 곳 : 고창 성당
- 때 : 7월10일(금) 오전10시30분
- 곳 : 무주 성당

❖ 성서교실 특강 및 피정

- 때 : 7월13일(월) 10시-16시
- 곳 : 중앙 성당
- 주제 : 계시론
- 강사 : 이병호 주교
- 문의 : 사목국(85-0041)

❖ 중등교육자회 임원회의

- 때 : 7월6일(월) 오후7시
- 곳 : 가톨릭센터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7월6일(월) 오후7시
- 곳 : 교구청 홍보국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7월12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 수녀연합회 월례회

- 때 : 7월7일(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1층 강당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7월6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7월20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사랑의 기적
- 회비 : 1,000원

❖ 축! 영명

- 5일(성안드레아 김대건) 김진소 신부님.
- 11일(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이영우 신부님.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7월12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84-3231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7월12일 오후2시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212-3233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7월12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좋은 환경 만들기

(카드-재생용지로)

성바로출판사에서는 하느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가톨릭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모임인 '하늘·땅·물·벗'과 손을 잡고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우유팩을 재생 가공하여 기쁨을 전하는 카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폐지를 이용한 재생카드는 신자들에게 작은 생활용품이라도 재생해서 사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일깨워주며 종이를 아껴쓰는 절약정신도 심어줄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흔히 먹고 버리는 우유팩을 물로 헹구어 펴서 말린 후 모아두었다가 재생종이공장에 보내게 되면 다시 가공하여 새로운 종이로 탄생한다.

본당이나 학교, 신자가정에서부터 실천수범하여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합시다.

- 재생지 카드 구입처 : 성바로 서원 (0652)252-33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수은 전지의 독성

시계, 카메라, 장난감 등 전자제품에 거의 사용되는 단추형 수은 전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사용 후 버려지고 있다. 전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조그만 물건이 아직도 27%의 수은을 함유한 채로 무단 투기될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 등을 오염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매년 수백여만개가 수입되나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우리의 관심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작은 괴물이다. 일본, 스위스의 경우 수은 전지 판매 창구를 공중보건기관으로 제한하고 폐전지와 교환조건으로만 새전지를 파는 등 철저한 중독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너무 미흡하다. 이제는 홍보차원을 넘어서 그 작은 것에 담긴 인체 유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책적 배려와 우리 개개인의 철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양재·한복·흙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인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한라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자갈 텐트 셋트 염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혜리(살로메)
관동로 전주 전신전화국 앞
☎ 84-2941

정연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마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 정 연(글리라)
☎ 223-4701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 성심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 대진요업
(0658)546-7080

본 사 :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조주온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원장 조 주 온(헬레나)

중앙 성당 맞은편(허기석내과 건물)
☎ 87-8291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99-1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0652)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중(안셀모), 김제철(안젤라)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성안드레아 김대건사제 순교자 대축일
1. 사목회 임시총회: 7월12일 전11시(공식미사 후) - 회장단, 교
분, 감사, 각 분과부·차장, 구역, 반회장, 각단체장께서는 참석바
랍니다. 2. 중·고하계캠프: 기간: 7.23~25일 장소: 영광 모
래미 캠프장. 참가비: 5,000원. 12일까지 교사회에 접수. 3. 모
임: ①자모회, 성심회-7일 어머니미사 후 ②푸리아-12일 후2
시 ③장우회-12일 공식미사 후 4. 노송신협 슈퍼개점(신협2층,
전고정문 앞): 7월7일 전11시. 조합원들께는 구입액의 3%를 출
자금으로 넣어 드리고 생활필수품을 일체 취급하며 좋은 상품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5. 금주청소: 인후4.6반 차주청소: 인후
7.8반

□ 지난주 봉헌금: 924,860원 □ 교무금: 713,000원
□ 2차헌금: 393,16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영세식: 공식미사 중.
2. 첫 영성체: 12일 공식미사.
3. 성시간: 9일 저녁 11시.
4. 회합: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헌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7일 오전10시) ④울드레아(7일 저녁미사 후)
⑤안나회(9일 오전10시) ⑥여성분과회(11일 오전10시)
⑦요새회(12일 공식미사 후) ⑧푸리아(12일 오후2시)
⑨청년회(12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582,000원 □ 교무금: 992,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오늘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순교 대축일.

1. 푸리아: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일 첫주(오늘)
3. 봉성체: 7일(화) 4. 성서일기: I 사무 16장~31장
5. 성모회 총회: 19일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여하세요.
6. 청소년사: 성실하신 동경녀Pr
7.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이옥동, 분영옥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한동옥 ②송정자
봉헌-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4,720원 □ 2차헌금: 128,34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푸리아-오늘 오후2시 ③
계속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7월12일)오후2시 ④성심회-7
월13일(월) 성심회 총회를 야외에서 하겠사오니 당일 오전10시
정각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 엄수바랍니다.
2. 알림: ①교무금 미납자는 조금씩이라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
다. 92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성껏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752,750원 □ 교무금: 56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1. 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전례 해설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수녀님께 연락바라
입니다.
3. 성가대원을 찾고있습니다(자진 신고바랍니다)
4. 일요일반 예비자 모집: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성야합: 남성단원 모집합니다(자진 신고바랍니다)
※ 청소년사: 4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578,800원 □ 교무금: 1,117,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②계속골라라형제회(후1시30분)
2. 원정수녀님 세미나: 6월~10일, 많은 기도바람.
3. 반기도회: 7월~10일, 각 반별로 실시.
4. 돈·보스코회: 8일, 오후.
5. 유아세례: 11일 오후3시-사무실에 미리 접수.
6. 환영합니다: 슈류성당 고평호(베드로)부제님, 본당사목실습. 8
월15일까지.
7. 구역미사: 매주 화요일, 미리 사무실에 접수.
8. 고백성사기간: 평일미사 전후로 10분.
9.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2시)
③사목회(후8시)

□ 지난주 봉헌금: 1,730,330원 □ 교무금: 2,077,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1. 초·중·고 여름 성경학교 원서교부: 5월~12일, 원서비-2,
000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2. 푸르실료, M·E 김승희 선착순 신청: 12일까지, 사무실에.
3. 구역 반회장 면담: 6월 전10시~12시, 반기도회 상황 보고.
4. 구역 반회장 연수: 6월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5. 남전주지구 초등부 교사회: 7월 후5일, 본당 회의실.
6. 제대회 월례미사: 10일 후3시, 회의-2시, 전임신자 환영.
7. 전화번호 신고: 7일까지, 반회장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8. 회의: 푸리아-오늘 후2시30분, 자모회-8일 어머니미사 후.
9. 영적, 물적예물예 감사: 3,232,000원 금고,팩시,교육자제로 봉헌.
10. 임진각 방문단에 감사: 잔금-248,900원 건축헌금으로 봉헌.

□ 지난주 봉헌금: 1,019,410원 □ 교무금: 1,06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사목회: 오늘 오후8시-신일APT 3동 408호
2. 예비자 성지순례: 오늘미사 후(천호성지)
3. 구역장 월례회: 7일(화) 오후8시30분.
4. 영세식: 다음 주일미사에 있습니다(축하합니다)
5. 성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6.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전10시.
7. 교리교사 모집: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김정자, 양노섭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송선심, 이승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설

※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20일~23일, 회비: 3,000원(250명
선착순) 7월1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모임-
1. 안나회-오늘 공식미사 후 12시.
 2. 울드레아-다음주일(12일) 10:30.
 3. 성구회-다음주일(12일) 후2시 본당천선테니스대회(교육대학)
-미사안내봉사-
 4. 금주-가난한 이들의 모후, 파티마의 모후.
 5. 차주-자비의 모후,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352,540원 □ 교무금: 2,272,8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반회장 및 제단체장 피정중, 특별기도 드립니다.
2. 모임안내: ①푸리아-공식미사 후
②제대회-6(월) 오전9시
③자모, 성심, 성모회-10(금) 10시미사 후

차주모임: 울드레아 신축헌금봉헌액-930,000원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유명성 ②한정숙
미사봉헌: 안내-황인용 부부, 최규화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최자성 ②윤규임
미사봉헌: 안내-1.김상섭 부부, 김광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06,230원 □ 교무금: 2,043,000원

□ 교향주일: 617,400원